
2010 상해엑스포 견학 등 중국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위한 의원 등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서



2010년 11월



순 천 시 의 회



목 차



I. 연 수 개 요	1
II. 연수동기 및 배경	2
III. 세부 일정표	2
IV. 연수자별 주요임무	3
V. 주요 방문지 및 견학 내용	4
가. 상해 체류 ➡ 10. 17. ~ 10. 18.	4
1. 임시정부 및 홍구공원(윤봉길의사 기념관) ...	4
2. 2010 상해박람회장 견학	7
1) 한국관	8
2) 북한관	14
3) 이란관	15
4) 이탈리아관	16
5) 중국관	18
나. 서안 체류 ➡ 10. 19. ~ 10. 21.	22
1) 서안박람회 사무국 준비 상황	22
2) 서안박람회 현장 방문	26
VI. 연수결과	28
VII. 참고자료	31
VIII. 제안서	40

2010 상해엑스포 견학 등 중국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위한 의원 등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서

1

연 수 개 요

1. 대 상 국 : 중국 (상해, 서안)

2. 목 적

- 2013 순천만 국제 정원박람회 성공적추진을 위한 2010 상해 엑스포 참관으로 국제적인 안목을 넓히고 해외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우리시 정책 자료로 활용하는 등 대안 제시
- 서안은 2011년도 원예박람회 개최지역으로 기반조성공사, 한국 정원 조성공사 등 전반적인 공사진행 사항을 벤치마킹하여 의정 활동에 참고 자료 활용

3. 기 간 : 2010. 10. 17(월) ~ 10. 21(목) 【4박 5일】

4. 보고서 작성자 : 소속 행정자치위원회, 성명 이 종 철 의원의

5. 출장자 인적사항

소속(위원회)	성 명	비 고	소속(위원회)	성 명	비 고
계	9명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윤형래	
의회운영위원장	임종기		의회사무국 행정7급	이의송	
행정자치위원장	유혜숙		의회사무국 행정7급	선순복	
행정자치위원	이종철		의회사무국 통신7급	박두규	
도시건설위원	서정진		의회사무국 기능8급	임경훈	

2

연수동기 및 배경

- 2013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개최될 박람회로 중국의 선진 엑스포 및 정원박람회 개최지를 방문하여 벤치마킹이 필요함

3

세부 일정표

일자	지 역	시 간	교통편	주 요 일 정
제1일 10/17 (일)	순 천 부 산 상 해	05:00 06:45 08:45 09:25 18:00 19:00	전용차량 KE875 전용차량	순천시청 집결 및 이동 부산 도착 부산김해 국제공항 출발 상해 푸둥 국제공항 도착 ☞ 상해 임시정부 및 홍구공원 견학 ☞ 도시계획관 견학 ☞ 상해 엑스포 견학 호텔 도착 견학결과 일일강평
제2일 10/18 (월)	상 해	08:00 18:00 19:00	전용차량	호텔출발 ☞ 상해엑스포 전일견학 호텔 도착 견학결과 일일강평
제3일 10/19 (화)	상 해 서 안	08:00 09:35 10:50 18:00 19:00	MU2132 전용차량	호텔 출발 서안으로 이동 ☞ 서안 원예박람회 공사현장 견학 - 서안원예박람회 준비위원회 방문 - 서안원예박람회 현장 방문 호텔 도착 견학결과 일일강평
제4일 10/20 (수)	서 안	09:00 18:00 19:00	전용차량	호텔 출발 ☞ 서안 원예박람회 공사현장 전일견학 호텔 도착 견학결과 일일강평
제5일 10/21 (목)	서 안 서 인 순 천	09:00 16:20 20:05 20:30 01:30	전용차량 KE808 전용차량	호텔 출발 ☞ 서안 원예박람회 공사현장 전일견학 서안 국제공항 출발 인천 국제공항 도착 인천 국제공항 출발 순천 도착 및 해산

※ 상기 연수 일정은 현지 여건 및 일기 사정에 따라 변경 할 수 있음.

연 수 자		주 요 임 무	비 고
직	성 명		
행정자치위원장	유혜숙	출장 총괄	
의회운영위원장	임종기	상해엑스포 우수사례 수집 서안박람회 준비사항 우수사례 수집 중국 관광정책 우수사례 수집	
행정자치위원	이종철	”	
도시건설위원	서정진	”	
행정6급	윤형래	”	
행정7급	이의송	”	
행정7급	선순복	”	
통신7급	박두규	”	
기능8급	임경훈	”	

가. 상해 체류 ➡ 10. 17. ~ 10. 18.

○ 주요일정 : 푸둥, 상하이 엑스포 박람회장

- 10. 17(일) : 홍구공원(윤봉길의사 기념관) 및 상해 임시정부 방문
- 10. 18(월) : 상하이 엑스포 박람회장 및 전시시설 벤치마킹

1 임시정부 및 홍구공원(윤봉길의사 기념관)

○ 장 소

- 홍구(루쉰)공원 : 사천북로(四川北路) 2288
 - 1922년 부터 홍커우 공원(虹口公園, 홍구 공원)이었으나 상하이 시정부가 1988년부터 루쉰공원으로 개명
 - 이 공원안에 중국 작가 루쉰의 묘와 기념관이 있기 때문이다.
- 상해 임시정부 : 상해시 노만구 마당로 306

○ 견학 주요장면



【홍구공원 입구】



【윤봉길 기념관 매표소 입구】



[윤봉길의사 기념관]



[윤봉길의사와 김구선생 면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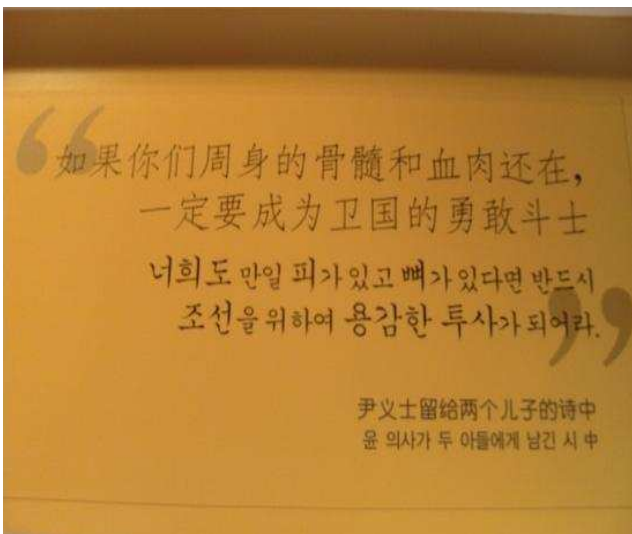


[윤봉길의사가 거사 전일 남긴 글]

- 부모의 사랑보다 형제의 사랑보다 처자의 사랑보다 더 한층 강(剛毅)한 사랑이 있는 것을 깨달았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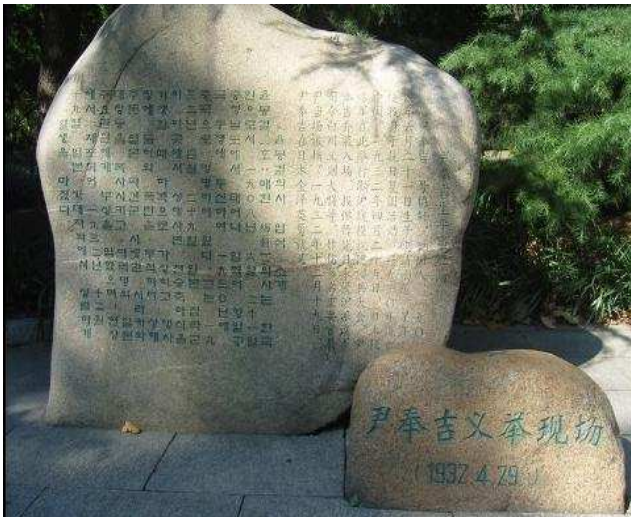
[윤봉길의사 처형시 사용한 십자 기둥]



[윤의사가 두 아들에게 남긴 시]



[윤의사가 폭탄으로 사용했던 것과 같은 수통과 도시락]



[윤봉길 의봉현장 비석과 윤봉길의사 연혁]



[윤봉길의사 의봉현장 -폭탄투척장소]



[대한민국 상해 임시정부청사 입구]



[대한민국 상해 임시정부청사 위치현판]



[임시정부청사 집무실 내부]



[임시정부청사 집무실 내부]

○ 결 과

- "너희도 만일 피가 있고 뼈가 있다면 반드시 조선을 위하여 용감한 투사가 되어라"(윤봉길의사)
- 윤봉길의사는 정말 멋진 분이였다.

-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로 뜨거웠던 조선의 청년이었다.
- 윤봉길의사 기념관을 본 우리는 마음이 가볍지만은 않았지만, 이런 분들이 계셨기에 우리나라가 있고 우리가 있다고 생각하니 절로 고개가 숙여졌다.
- 임시정부를 설치하고 끝까지 싸워 나라를 되찾았다는 것, 과거역사에서 도 거대한 중국에 흡수되지 않고 현재 대한민국으로 남아 있는 것은 자랑스러워 할 일이었다.
- 이번 홍구(루쉰)공원을 다녀온 것은 공직자들로써 국가와 순천시(시민)를 위해 큰 의미 있는 일이었다.

2

2010 상해박람회장 견학

○ 개 요

- 명 칭 : 2010년 상하이 세계엑스포(中国2010年上海世界博览会)
The World Exposition Shanghai China 2010
- 주 제 : “Better City, Better Life” (아름다운 도시, 행복한 생활)
- 기 간 : 2010. 5. 1 ~ 10. 31 (총 184일)
- 규 모
 - 면 적 : 5.28km² ※정원박람회장의 약 3배
 - 투자액 : 286억위안(약4조6,526억원)
 - 시 설 : 중국관, 테마관, 엑스포센터, 공연장,
국가관(자체건축, 42개), 임대관(40여개), 공동관(11개) 등
 - 참 가 : 192개 국가, 50개 국제기구, 기업관(17개), 도시관(50개)

○ 엠블렘(Emblem) 및 마스코트(Mascot)

엠 블 렘	마스코트
 “世”자와 숫자 2010을 조합	 이름은 “하이바오(海寶)”로 바다의 보물이란 뜻이며, “人”을 형상화. 청색은 중국의 잠재력을 암시

○ 박람회장 구성



- A : 한국관, 일본관 등 아시아 지역
- B : 중국관, 오세아니아 지역
- C : 아메리카, 유럽, 아프리카
- D : 기업관
- E : 테마전시지역

◎ 견학내용 및 중점점검사항

<상해엑스포 주요 전시관 및 5개 국가별 전시관 견학>

1) 한국관

주제 : 조화로운 도시, 다채로운 생활(Friendly City, Colorful Life ; 和谐城市、多彩生活)

- 한국관은 외벽을 한글로 장식했는데 참, 독특하고 아기자기한 모습이였다. 한국인으로서 자부심을 느끼는 시간이었다. 한국관은 도시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엑스포에서 소통과 융합을 주제로 한국문화의 다양성을 표현했다.
- 산과 강이 어우러진 서울을 1/300 스케일로 축소하여 1층 공간을 구성하였고 한국 고유의 융합적 사고의 산물이자, 대한민국 최대 IT발명품인 융합기호 한글을 형상화했으며,
- 한국관은 엑스포 단지 내 5개 구역 중 A구역인 아시아존에 위치
- 한국관은 엑스포 국가관 중 가장 방문하고 싶은 국가관의 하나로 선정
- 한글 자모의 기하학적인 특성을 입체적으로 표현한 ‘한글픽셀’로 이루어져 제 2의 백남준이라 불리는 재미작가 강익중의 작품 ‘아트 타일’ 38,000개로 아름답게 장식
- 야간에는 42,000여개의 LED조명을 통해 다양한 한글 자모가 빛을 발하는 살아 숨 쉬는 듯한 건축물로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었음

- 서울의 지형을 그대로 옮겨놓은 1층은 사방이 뚫려있는 공간으로, 어느 방향에서든 관람객의 방문이 용이하였고, 가운데에는 한강이 흐르고, 관람객들은 북한산 스탠드에 앉아 남산 무대에서 벌어지는 민속무용, 국악 등 다채로운 공연을 관람토록 하고 있음.
- 2층은 전시공간으로 구성하였고,
- 한국과 중국의 어린이가 밝은 미소로 관람객을 맞이하고 한국의 신명나는 문화를 담은 컬러존 형상화로 난타, 태권도, 비보이공연 등 8(여덟)가지 영상에서 한국인의 ‘흥’을 느낄 수 있음
- 생명의 숲을 모티브로하여 한국의 친환경 생활방식과 녹색성장 전략을 선보이는 네이처존- 자연의 바람과 소리, 향기가 오감을 자극하여 마치 숲속에 온 듯한 기분을 느끼게 함
- 세계가 주목하는 도심의 생태환경을 되살린 ‘청계천 복원 사업’을 다룬 다이내믹 청계천 코너에서는 과거와 현재를 넘나드는 증강현실을 체험하게 됨
- 한국인의 훈훈한 정을 담은 휴머니티 존 - 관람객에게 행운의 메시지를 전하고, 미디어테이블에서는 한국 음식 속에 담긴 정을 표현. 대형스크린에서는 미소, 나눔, 인심, 한중우정을 담은 다양한 사진영상을 통해 한중우호의 의미를 전달
- 첨단 기술의 집합체인 테크놀로지존에서는 초대형 멀티터치월을 통해 한국의 유비쿼터스 기술로 편리해진 미래의 생활과
- 또한,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3D영상을 통하여 한국의 뛰어난 3D 기술력을 선보임
- 주제영상관인 ‘코러스시티’에서는 실사와 애니메이션, 멀티미디어 쇼가 결합된 새로운 영상을 선보이고
- 시민들의 꿈을 이뤄주는 ‘위시메이커’와 장애인 소녀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통해 소외된 사람들의 마음까지 배려하는 한국의 도시비전을 소개
- 영상관에서 연결된 2012 여수엑스포 홍보관에서는 바다안개 너머로 보이는 구형 스크린과 양면 대형스크린을 통해 신비로운 미래 바다속을 경험하고
- 대형스크린 앞 12개 키오스크에서는, 미래 해양생활을 도와줄 자신만의 물고기를 만들어 스크린으로 보내는 체험하였음.

- 마지막으로 한중우호교류관 - 한중 작가의 공동 설치작품인 ‘금란지교의 나무’를 통해 한국과 중국의 영원한 우정을 약속하고, 3D 멀티비전에서는 한중 화합의 메시지를 전달하였음.

▪ 주관 및 시행기관 - 지식경제부 / KOTRA

▪ 기대효과

- 첨단기술 및 문화 국가로서의 국가브랜드 이미지 제고와
- 다양한 분야의 한-중 교류 및 협력을 확대하고
- 한국적 미래도시 비전 제시하였음.

▪ 슬로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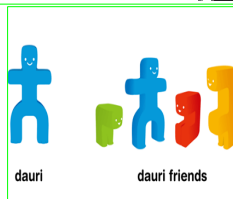
您的朋友, 大韩民国 Your Friend, Korea
过去五千年, 今后五千年 大韩民国永远是你的朋友
지금까지 반만년, 앞으로도 반만년 대한민국은 중국의 영원한 친구

▪ Symbolmark



작은 조각(개인)들이 조합(공동체)되어 이루어진 구형태는 한국의 도시 정체성, 즉 Friendly City를 상징한다.
또한 구의 6개의 면은 각각 한국을 상징하는 색으로 채워져 Colorful Life를 상징하게 된다.

▪ Mascot - 다울이



'모두 다함께 어울려 살다'는 뜻의 다울이는 도시가 회복해야 할 가치, 즉 한국관의 정신을 가장 잘 함축한 순수 우리말이다. 다울이는 한국관 아이덴티티의 기본 요소인 큐브로 이루어진 입체 한글 타입(type)을 응용하여 제작하였다.

▪ 건축설계

- 매스스터디스

매스스터디스는 대량생산 문화, 과밀화된 도시적 조건, 그리고 새롭게 등장하여 현대성을 규정하는 문화적 틈새들의 맥락 속에서 건축에 관한 비판적 탐구로써 2003년 서울에서 건축가 조민석에 의해 설립되었다.

매스스터디스는 과거와 현재, 지역과 전체, 이상과 현실, 개인과 집단과 같은 21세기 공간적 조건들을 규정하는 수많은 마찰들 속에서 개별적이고 단일화된 시각이 아닌, 다중적인 상황들에서의 효과적인 복합성에 초점을 둔다. 다양한 범위의 스케일을 넘나드는 각각의 건축적 프로젝트에 대해, 매스스터디스는 새로운 사회적, 문화적 가능성을 발견하게 하는 비전에 초점을 두고 공간체계/매트릭스, 건축재료/공법, 건물의 유형적 확산 등의 주제들을 탐색한다.

- 대표 : 조민석, 미국건축사 AIA



- 파트너 : 박기수, KIA

- 매스 스테디스 대표작

<관람소감>

○ 한국관은 상설 공연임에도 별도의 줄을 서야 할 정도였습니다.

코러스시티와 상설 공연 이외에도

체험식 전시 콘텐츠, 도우미, 건축물에 대한 호평도 많았습니다.

○ 특히, 눈으로만 즐기는 다른 외국관에 비해서

한국관은 관람객이 직접 체험이 가능한

인터랙티브 콘텐츠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인터랙티브 게임, 그림자 멀티 터치 월, 3D TV가 대표적이었지요

○ 코러스시티 못지 않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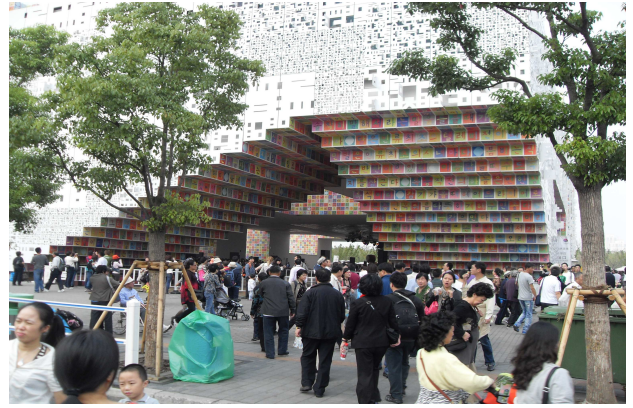
비보이, 재즈발레, 사물놀이, 퓨전음악,

민속무용, 부채춤, 북춤 등의 공연이

○ 개최기간중 오전 10시부터 밤 9시까지 하루 열 두차례나 진행되고 있음.



【일본관】-한국관 가는 길에...



【한국관 외부】



【한국관 입구에서 전담가이드 면담】



【한국관 입장 대기관객】



【최향순 민속무용단】



【사물놀이단】



【북춤】



【야외관람객】



【 3D TV 】



【인터랙티브 게임】



【인터랙티브 컨테츠】



【그림자 멀티 터치 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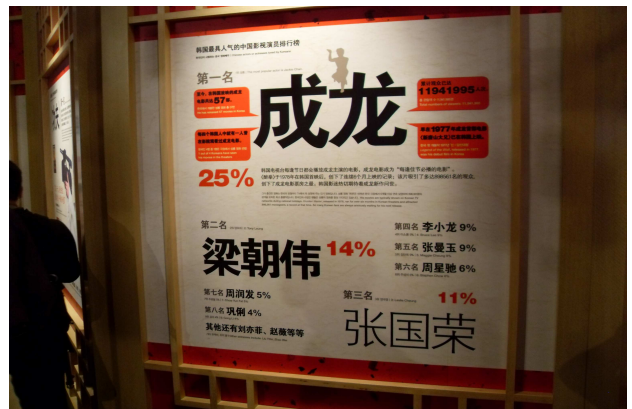
【금난지교의 나무(한·중우호 상징)】



【금난지교 나무 근접장면】



【중국 성인들의 지지율 조사결과】



【중국 영화배우 선호율 조사결과】

2) 북한관

- 북한관은, 엑스포 구역의 남동쪽 끝에 있다. 밖에는 인공기를 세로로 길게, 크게 그렸고 그 위에 한글로 ‘조선’이라고 썼다. 다른 관에 비해서는 참 초라한 모습이었다. 기다리는 사람은 많지 않아서 마음 먹으면 곧 들어가 볼 수 있다. 가운데 돌다리가 있고, 입구에서 들어가서 왼쪽에는 평양의 전경을 담은 대형 사진이 있었다. 그 앞에는 주체사상탑 모형이 있었다. 출구쪽 위에는 대형 모니터가 있어서 북한에 대한 영상을 보여준다. 영상 속에서, 백인관광객들이 버스에 올라 평양 곳곳을 둘러보고 즐거워하는 표정이 이어진다. 와 볼 만한 곳이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것이다. 그 탑의 이름이 ‘주체사상탑’이라는 것도 영상을 보고 알았다.
- 다리를 건너가면 분수대가 있다. 분수대의 가운데에 아이들 몇몇을 형상화한 모형이 있다. 아이는 비둘기를 날리는데, 그 너머 벽 위에 ‘Paradise for Peoples’ 라고 적혀있다. 인민을 위한 파라다이스. 파라다이스.
- 아프리카 소국들의 전시관은 중국정부의 지원을 받아 지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아프리카와 유럽 소국들의 국가관을 둘러보면서, 나라의 힘이라는 것이 이런 것인가 싶었다. 전시장 크기와 그 화려함이 다른 어떤 것보다 국가의 힘이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듯했다. 전시장을 들여다 볼 때, 북한은 작고 가난한 나라 중 한 곳 이었다.



【주체사상탑】



【사상 의식화 교육 서화류 진열상품】



【북한 주요관광지】



【북한 주요관광지】



【특산품 매장에서】

3) 이란관

○ 이란관은 북한관 옆의 위치한 아랍권 국가다운 외관이다.

내부는 화려한 벽면에 왕을 흠모하는 젊은 이 모습의 초상화와 모슬람 도시의 모습 벽화를 배치하였으나 흥미로운 것을 느끼지 못한 관이었고 출입구에서는 아란산 실크와 양탄자를 판매하고 있었다.



【이란관 외부】



【이란관 내부】



【지도자에 절대복종하는 젊은이 모습】



【화려한 내부벽】



【이란의 풍경화 작품 전시 장면】



【특산품 양탄자 매장】

4) 이탈리아관

- 이탈리아관의 주제는 "인간의 도시(City of Man)" 이다.
- '이탈리아' 하면 떠오르는 것들, 패션, 자동차, 스파게티, 파스타, 와인, 문화예술 등을 독특한 아이디어로 전시하고 있다.
- 소형 이탈리아 도시와 같은 골목, 정원, 오솔길, 광장 등 이탈리아 도시의 전통적인 요소로 차넘치고 있었음. 전시관은 이탈리아의 과학 기술, 음악, 패션, 건축 등 분야의 성과를 전시하면서 생기와 행복감으로 차고 넘치는 도시를 펼쳐보이고 있음.



【이탈리아관 외관】



【내부 건축조각상】



【석회암에 새긴 글씨】



【2층 전시관 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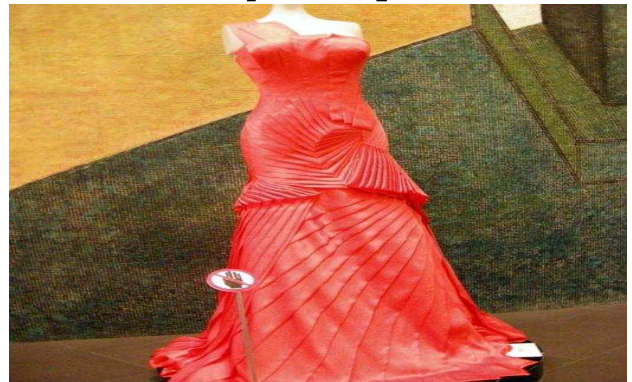
【양상들을 표현한 의자】



【패션의상】



【패션복 홍보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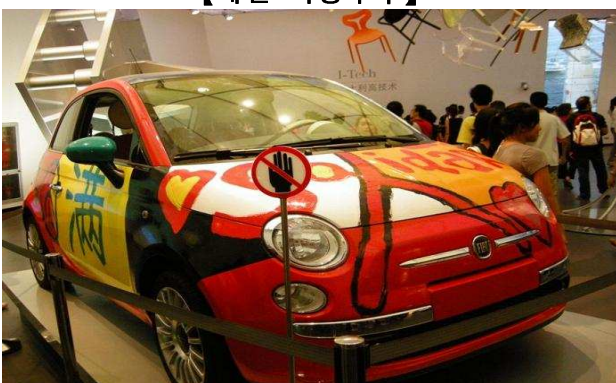
【패션여성상】



【패션 여성구두】



【이탈리아식 식당내부】



【태양열자동차 전시관】



【대형 로봇】



【찬란한 보석금관】



【파스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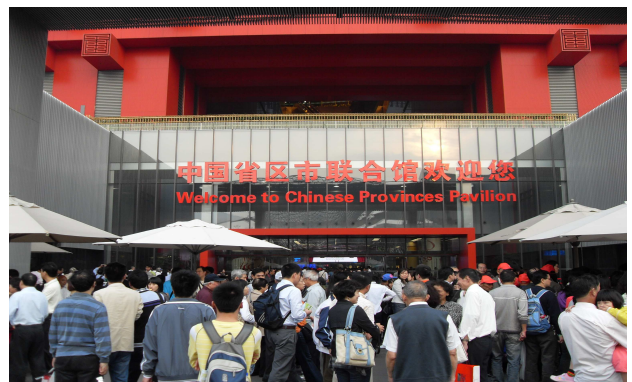
【2015 엑스포 밀라노 개최를 홍보】

5) 중국관

- 중국관은 한국, 일본 등 다른 관들에 비해서 볼거리가 많은 관이었다. 나름대로 개최국의 파빌리온이어서 그런지 준비가 착실히 이루어진 것 같았다. 정말 굉장한 것들이 많았지만 청명상하도(清明上河圖)를 첨단 기법과 융합해 전시해 놓았는데 정말 예술이었다. 시대별로 중국의 모습을 보여준 것도 인상적이었다. 역시나 중국관이 상하이 엑스포에서 가장 볼만 하였다.



【중국관 외관】



【중국관 입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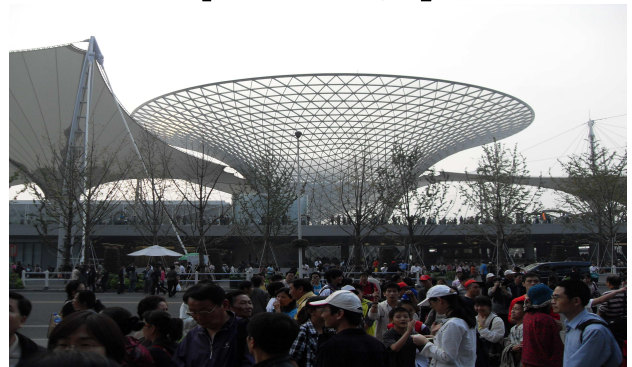
【중국관 앞 녹지대】



【VIP입장 대기중】



【VIP전용입구와 통로】



【외부 조형물】



【126M(?) 화폭에 생동하는 사람 영상표현】



【청명상하도(清明上河圖)】



【박람회장 내 순환버스】



【박람회장 내 전기자동차(유료)】



【포동(국가관 지역)~포서(기업관 지역) 간 페리】



【식당 내부】



【식당 전경】



【식당 출입구】



【기념품 판매소】



상해엑스포 견학 결과

- 상해엑스포는 다른 여느 엑스포 보다 규모가 좀 큰 편이었다. 사람이 너무 많으면 어찌나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날도 무지 많았다.
- 우리는 강과장님과 가이드(이란)의 능력(?)으로 모두 VIP통로를 이용했다. 어딜가나 사람이 많아서 VIP도 많았다. 예약한 VIP에게는 개별적으로 도슨트(안내자)가 붙어 중국관의 각 관을 자세히 설명해 준다. 와~ 정말 많은 사람들.. 외국인 보다는 중국 각지에서 몰려 온 사람들이 더 많아 보였다.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VIP로 하지 않고서는 엑스포 구경은 엄두도 못낼 것 같았다. 특히 중국관은 기다리는 줄이 장난이 아니다!
- 세계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는 환경문제도 빼놓지 않았다. 자연과 하나 되는 상하이의 미래 모습도 보여줬는데 꽤나 인상적이었다. 녹색도시

로 탈바꿈할 중국을 한번 기대해 보자!

- 중국의 23개성, 5개 자치구, 4개의 직할시, 2개의 특별행정의 모습을 각각 구경할 수 있었다. 중국관은 정말이지 구경할게 너무나 많았다.
 - 주요 전시관 예약시스템은 조직위에서 관리하기 편리한 방식으로 운영
 - 중국관은 100% 예약제, 인기관은 30%까지 예약 허용
 - 예약은 박람회장 안에 설치된 기기(reservation station)를 통하여만 가능하고, 외부에서 인터넷 예약은 불가(암표·사표 방지 차원)
 - 폭염에 대비한 햇빛 차단시설을 충분히 배치(전체 면적의 40%)
 - 엑스포축(30만㎡) 전체에 햇빛 차단막을 설치하였고, 주요 동선을 2층화하여 1층(지면)은 자연스럽게 그늘이 형성되게 하였음
 - 안내사인은 영어와 중국어 2개로 한정
 - 음식물의 원활하고 신속한 수급을 위해 음식물의 위생관리 및 조리는 회장 밖에서 이루어지고 완제품에 가까운 조리식품을 회장내 반입을 유도
 - 내부이동수단
 - 전기자동차 120대, 친환경 자동차(Super Capacitor Bus) 36대, 수소연료전지버스 6대
 - 박람회장 외부접근수단
 - 엑스포 주변도로 39개 신설(약 110km)
 - 수로 터널
 - 시장난루(西藏南路) 터널은 포동과 포서를 통과하는 엑스포 전용 터널로 사용
 - 지하철
 - 엑스포 전용노선인 13호선 1개 포함, 총 6개 노선(4·6·7·8·9·10호선이 엑스포장 접근 가능)
 - 버스 : 총 16개 노선, 엑스포장 진입용으로 사용
 - 페리
 - 관광선 132척, 여객선 22척 운항
 - 엑스포장 내 황포강 연안에 워터게이트 4개, 부두 6개, VIP부두 1개
 - 주차시설
 - 총 19개 주차장(VIP 주차장 4개 포함)
 - 대형버스 4,800대 주차 가능공간 확보
- ⇒상해와 비교한 정원박람회의 규모 등 고려시 회장 내 관람객 동선과 분리된 이동수단 필요

나. 서안 체류 ➡ 10. 19. ~ 10. 21.

○ 주요일정 : 서안박람회장 준비상황 및 현장, 한국관 시공현장 등 방문

1 서안박람회 사무국 준비 상황

○ 서안박람회사무국 브리핑(11:30~14:00, 회의실)

- 행정자치위원장 유혜숙의원의 관계자 여러분의 서안 방문을 환영함. 도착과
동시 구내식당에서 현지식 중식시간을 갖고 곧 이어서 회의실로 이동
- 먼저 관리 주임이 이 자리에서 박람회 관한 준비사항 소개
주임이 순천시 방문에 대비하여 국제박람회 설명준비를 많이 함.

○ 2011서안원예박람회 주임 설명

- 위원장 일행 방문의 2011년 서안 박람회 개최지역에 설명 드림.
- 설명후 곧이어 현장 방문실시함.
- 설계처의 처장이 2011서안박람회 계획과 설계를 설명하였음.

○ 2011서안 박람회 계획과 설계 설명 (설계처장) - PPT 보고 설명

- 주제는 천인장안, 창의자연- 주제를 중심으로 대략적인 계획
- 화면지도는 서안시 도심 중심 지도
- 서안박람회 위치는 강가에 위치 , 사업비는 SOC 포함 5,000억원
- 단, 토지매입비는 산과생태지구에서 매입해서 무료로 대여
- 조성내용 : 국내원림, 해외원림, 자체원림
- 개발구 내부구조 - 주제관, 오주원, 체험문, 창의를자연문, 과학기술원
등 5개 개발지구
- 박람회는 2개축으로 동선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는 주제관까지 연결,
다른 축은 전망대 축
- 두 번째 입구에서 각 나라의 정원
- 각 정원은 원을 중심으로 구성
- 중국 각 성의 정원, 산시성 정원, 기업정원 등 유치
- 설계는 국제입찰 - 영국의 세계 톱크라스 중의 하나-경관 최고업체

- 무대는 수상무대, 매일 저녁 공연 예정
- 온실도 섬세하게 구성 - 각종의 식물, 꽃 전시, 온실내부 경관
- 온실 설계 : 반 지하상태
- 전망대 : 장안탐을 모형으로 전시 : 목탑사의 전형, 원형 본뜬
- 출입구가 총 5개 - ① 가운데 주요 출입구 ② 좌측 : 단체관광객
③ 오른쪽 : 보조입구 ④ 왼쪽 아랫쪽 : 접대 입구 (귀빈, 요트로),
⑤ 오른쪽 아래 : 직원 출입구
- 도로는 3개급 ① 1급도로 전체 총괄(내환성, 외환성) 도로(건설완료)
8개 역전, 탐방열차 ② 2급도로 : 보행, 국내외정원을 연결
③ 3급도로 - 2급도로의 보충도로
- 정원전시 : 총109개(국제정원 8, 중국·홍콩·대만 등 58, 각성 자체정원43)
- 제일 중요한 시설(세계 최고의 휴식처) ① 첫번째 휴게소 - 동남아,
② 두번째- 유럽의 도시, ③세번째 - 박하 연안
- 휴게소 이용객을 1천2백만명 . 매일 4만 - 6만 방문 고려 설계
- 중요한 관광지(8개) ① 장안모습, ②실크로드, ③해외 각나라,
④ 중남산 지표식물, ⑤ 동남아정원, ⑥ 사계절 화도(4개섬을 이용 4계절
보는 식물), ⑦ 박하강 위에 무지개 연출, ⑧ 미래의 과학기술(정원관련 업
체의 미래, R&D 기술지원 업체)
- 평면도 배치가 전체 조감도를 대체
- 자체 건설 정원 배치도
- 설명이 끝난 후 박람회 설계도에 대하여 완성된 모습을 이동동선
을 따라 3D영상으로 소개, 계획도면을 중심으로 전시도면(미래도면)
- 박람회장 입구에서부터 1급 도로로 전체정원을 둘러보는 장면
- 주입구에 나무를 이용 그늘막을 조성, 강을 최대한 활용
- 느낌이 굉장히 좋음
- 서안은 2007년 AIPH에 신청해서 허가 받음.
- 박람회 지역은 산과개발지구내에 위치하며, 준비가 한창임.
- 기간은 6개월이며, A2+B1급이며, 참가인원은 12백만명 예상

○ 행정자치위원회 유혜숙 위원장 인사말씀

- 먼저 정말 환대해 주셔서 주임을 비롯한 여러분께 감사
- 저는 두번은 관광으로 이번에는 업무차 방문하게 되었음.
- 서안을 방문할 때마다 문화의 저력을 느낄 수 있음.
- 오후에 담당책임자들로부터 친절한 설명을 들었으며, 세계 최고의 박람회 개최될 것으로 생각됨.
- 서안의 문화를 보기 위해 한국을 비롯하여 수많은 세계인들이 찾는데 박람회 개최이후 더 많은 사람이 찾을 것으로 생각됨
- 다시 한번 환대에 감사드리며, 서안의 발전과 2011서안박람회의 성공을 기원함.



2011서안박람회 사무국 주재 간담회
(박람회 사무국 주임 등)



박람회 사무국 개발주임과 1문1답
토론장면

○ 서안박람회사무국 개발주임과 1문1답식 토론(13:00~14:00, 회의실)

1) 서안을 흐르는 강이 얼마나 큰가?

⇒ 총 부지면적의 1/3이 강이거나 하천부지임

2) 서안박람회 설계의 의미는?

⇒ 서안은 고도(古都)의 도시이나 옛 이름은 장안으로 박람회 부지내에 장안
탑을 유리벽을 설치하여 현대식으로 건축, 현재의 서안을 표현하고 있음

3) 중국의 입장에서 순천의 박람회 개최 준비를 지켜보면서 걱정되는 것이 있다면?

⇒ 걱정하는 것은 없고 신심이 큼(크게 성공하리라 확신함)

4) 서안의 박람회장 원래의 부지 활용상태는 무엇이었나?

⇒ 자연보호구역 지정지역으로 숲이 조성된 곳도 있지만, 대부분 공한지나 쓰레기 투기 등 폐부지였다.

6) 수목(나무) 이식은 얼마나 걸렸는 지?

⇒ 폐허부지는 수목을 식재하는 중이었는데 국가에서 우연히 박람회 유치 계획이 수립되어 4~5년 동안 숲을 조성해 왔음.

7) 순천은 2013년만 정원박람회 개최할 날짜만 지정해 놓은 상태이고 그 지역은 바닷가의 논인데 대경수목을 식재시 잘 살수 있겠는가?

⇒ 섬서성은 모래땅이었는데 바닷가라면 잘 모르겠음. 순천은 잘 할 수 있을 것임.

⇒ 그러나 바닷가 근처라면 우선 토질의 화학적 분석이 필요할 것임-생존가능식물을 선별 식재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임. 중국도 천진박람회장의 장소가 한국과 같이 바닷가 부근이었으나 그당시 식재한 적정 수목이 현재까지 잘 자라고 있음.

8) 정원 박람회는 수익사업성이 있다고 봐야 하는 지?

⇒ 관람료(매표)만 6~7억원, 특산품 판매 10~15억원 정도로 경제적 조건은 투자대비 수익성은 적을 것임. 투자비가 훨씬 많은 것이라고 보고있음.

9) 이전에 심양박람회장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개최이후 관리방안은 무엇인가?

⇒ 폐막후에는 전문기관이 설립되어 기관별 책임하에 관리하고 있음. 개최만 하고 폐막시 운영위원회는 박람회 사업장에서 철수하였음. 중국은 정부에서 사업비용을 지원하지 않고 각 성의 기업중심으로 투자하게 하고 있음 (예로 '서안 박람회 투자유한공사'등 여러개 공사를 설립 투자하는 것임)

10) AIPH가 다음번 개최 장소를 중국 탕산으로 지정했다는데?

⇒ 2014년에는 중국 청도에서 개최하기로 함-부지는 산림지역이다.

2016년에는 중국 탕산에서 개최할 것임-부지는 이 곳 서안지역과 유사함

2 서안박람회 현장 방문 / 산파생태지구 7층 방문

▶ 2010. 10. 19(화) 14:00 ~

- 서안은 산파 생태지구내에 강을 사이에 두고 강북쪽에는 정원박람회 지구를 조성하고 강 반대쪽에는 서안 도심 주거지역 (55만명 계획인구)와 상무지구(금융, 무역, 서비스업 등) 조성
- 정원박람회지구는 모래톱이었으나 낮은 부분은 호수로 조성하고, 높은 부분은 흙으로 채워 산을 조성 수목을 식재하였으나, 나무는 조경수라기보다는 회화나무 등 일반나무 식재



2011서안박람회 개최 지역 조성공사중 (공정 90%), 박람회를 2년 앞두고 잔목수부터 식재중

- 큰 나무는 4~5년 전부터 식재하여 조경수 활착에 대하여 미리 준비하였고,
- 서안정원박람회 주변은 강의 폭이 500m 이상 되고, 보가 12개가 설치되는 등 중국 최고의 수질, 우리나라 한강의 양안을 활용한 도시개발에 의한 정원박람회를 준비하고 있음
- 정원박람회 출입구를 강의 특성에 따라 5개 지역으로 분산하여 많은 방문객들의 동선을 고려하였으며, 강을 최대한 활용
- 그리고 동남아 휴식처, 유럽 휴식처 등 먹거리와 휴식공간을 만들어 전체 동선을 둘러보는데 있어 생산성 향상까지 고려하였음.



대경목 식재 상태



잔목수식재 상태



한국 순천기념관 시공 개략도



한국 순천기념관 시공 현장설명



한국 순천기념관 기초 바닥 시공현장



한국 순천기념관 담장 기초 자갈깔기 시공현장

시 사 점

- 상해임시정부와 일제항거에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독립투사들의 발자취를 보면서 내 조국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실감하였음.
- 세계에서 가장 큰 중국땅에서 바라 본 한반도는 너무도 작고 미약하게 보였지만, 그 큰 중국이 수 백번 한반도를 정복하려고 호시탐탐 노려왔던 과거 옛 역사를 회고해 보니 우리의 선조들은 나라를 잃지 않기 위해 목숨을 기꺼이 바쳤다는 사실이 너무 감동적이었고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었음.
- 우리나라의 자연환경은 사계절이 뚜렷하고 산자수려해서 아름다운 땅임을 새삼 느꼈고 우리 것이 최고라는 '신토불'이란 단어가 우리민족 고유의 참맛을 대표한다는 생각을 비로소 해 보았으며, 방문기간 동안 우리나라의 맑은 날씨가 정말 그리웠던 시간들이었음.
- 최첨단 IT기술과 경제도약을 통해 선진국으로 진입하게 된 것을 자랑삼아 시민들에게 세계속의 한국 위상을 확고히 알리고, 자부심을 불어 넣어 양보와 화합으로 지도층부터 솔선하여 법치국가를 이루고 모든 이에게 애국자가 되는 길을 철저하게 시민교육 등으로 선도할 때임을 강하게 느끼게 됨.
- 상해엑스포는 넓은 면적이라서 각 나라의 전시관을 이동 하는데에서부터 시간이 많이 소요될 뿐 아니라 관람객들이 너무 많아서 1일 1개관 보는 것이 보통임에도 우리는 VIP자격으로 부지런히 뛰면서 5개관을 견학하게 되었음 ⇒ 정원박람회장 설치시 각 나라 관의 거리는 가까운 거리에 설치하여야 하겠음.

- 엑스포장 주변 도시들은 대형 고층 건물들을 통해 야간 조명을 설치하여 밤낮 구별없이 관광도시를 만들어 놓았음. 또 인근에는 황포강이 있어 유람관광을 통해 관광수입을 올리고 있었음.
- 서안 박람회장은 폐천부지와 쓰레기 투기부지 등을 광활한 부지를 활용하여 박람회장으로 활용하고 있었으며 대경목은 4~5년전부터 식수를 해 왔고 현재는 잔목수 식재와 꽃화단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태였음.
- 브리핑을 통해 들어 본 결과 대부분의 시설공사는 금년 말까지 완료한다는 것이고 내년 4. 23 오픈시까지 모든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았지만 박람회장 부지는 전부 국가소유이므로 그들은 자신 있게 추진할 수 있다고 하였음.

1. 잘된 점

- 상해와 서안은 국제공항이 한 곳에 2개씩 설치되어 있고 도시간 고속철도망을 갖추었으며 자동차 전용 육상 교차로를 지상에만 6층까지(지하는 별도 2층) 설치하여 신호에 구애됨이 없이 통과할 수 있는 교통망을 만들어 교통대란을 잘 극복 하고 있었음.
- 출퇴근 시간대에 직장인들 대부분이 자전거나 전기자전거, 오토바이 등을 이용하고 있어 차량소통이 원활하였음.
- 주요 관광지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양귀비, 진시왕 등 전통 역사 기념관을 설치하여 관광객을 만족시키는 프로그램을 독특하게 운영하면서 볼거리를 다양하게 제공해 주고 있음.
- 박람회장과 관련해서는 기 식재한 광활한 면적의 잔디 및 조경수 활착상태는 양호한 편이고, 건물등이 비교적 양호하게 관리되는 등 사후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판단됨.
- 박람회를 통하여 도시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수목과 광활한 잔디 그리고 꽃으로 각각의 특성과 모양을 연출하여 단조로움과 식상함을 극복함
- 주진입로를 언더패스 개념을 적용하여 주차장과 박람회장을 자연스럽게 연결함
- 국내외 정원을 자연스럽게 연출하여 박람회장을 둘러보는데 지루하지 않고 구석 구석 둘러보고 싶은 궁금증을 유발함
- 시민 휴식공간과 어린이 놀이공간을 조성하여 가족단위 관람객이 많음(관람객 유치에 성공)
- 백합탑은 전망대로서 기능도 있지만 상징물로 아주 인상적임
- 박람회장과 인접한 도로의 소음을 언덕과 나무로 자연스럽게 차단함

2. 미비한 점 (개선할 사항)

- 수많은 종류의 꽃과 나무가 있다고 하나 관심을 끌만한 희귀 식물은 눈에 띄지 않았으며, 꽃과 나무에 명패를 붙이지 않아 눈으로만 즐길뿐임.
- 총 109개의 국내외 정원을 조성하므로 시설물이 너무 많으며 사후관리도 미비함(하나를 조성하더라도 미래를 내다보면서..)
- 국내정원의 경우 정원 느낌보다 건물과 성(시) 홍보에 치중하여 차별성이 없음
- 도로 대부분이 차도와 인도의 구분이 없어 위험할 뿐만아니라 서로에게 불편을 줌
- 위락시설이 너무 많아 정원이 인간에게 주는 소중한 가치를 퇴색시킴(여름철 피서지, 유원지 개념에 가까움)
- 도보, 자전거 등 친환경 동선 부족
- 각국 정원이 너무 형식에만 치우치고 빈약하므로 우리시에서 조성하는 박람회장은 각국에 진출해 있는 대기업에서 해당국가와 공동으로 정원을 조성함으로써 내실을 기하고 기업 홍보를 겸하도록 유도 하였으면 함.

- 각종 시설중 철 구조물을 지양하여 차후 녹이 쓴다든지 흉물스런 모습이 보이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것임.

7

참고자료

 중 국 (중화인민공화국) People's Republic of China		국 화	미결정(목란, 매화)
		위 치	동부 아시아
		위 도	N 53
수 도	베이징(Beijing)	경 도	E 62
인 구	약13억명	시 차	1시간 늦음 (북경의 표준시각 적용)
면 적	9,572,900Kkm ²	기 후	습윤기후30%, 건조기후30%, 대륙성기후 34%, 기타 6%
언 어	중국어	기 온	연평균기온 11.9℃ (-35℃~37℃)
종 교	도교, 불교, 그리스도교 3% 이슬람교 1~2%	강우량	254mm~762mm (평균 약 626mm)
화 폐	위 안	식 생	목련, 매화
환 율	185원/1Yuan	산 업	농업, 광업, 공업
비 자	3개월 무비자	G D P	7,700달러
항 로	13개 주요도시와 직항로 매일 운행	국 민 득 소	2,461달러
대사관	☎ 86+10+6532-0290(사) ☎ 86+136+0103-0178(헨) FAX 86+10+6532-0141	박람회 개 최	AIPH 승인 국제박람회 3회(쿤밍, 심양, 서안)

184일간의 경제·문화 올림픽 2010년 상하이엑스포



상하이엑스포 개요

상하이엑스포는 매5년마다 개최되는 등록엑스포로서 240개 이상의 국가, 국제기구, 기업들이 참가하고 7,000만 명의 관람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엑스포 역사 150년 이래 최대 규모의 세계박람회입니다.

공식 명칭:	2010년 중국 상하이엑스포 약칭으로 2010년 상하이엑스포 혹은 상하이엑스포로 불림
개최 기간:	2010년 5월 1일 ~ 2010년 10월 31일 (총 184일간)
개최 면적:	5.28Km ² (여의도 면적의 2/3 크기)
주제:	Better City, Better Life
참가:	192개 국가, 49개 국제기구, 17개 기업관, 50개 도시관
관람객 예상:	7,000만 명 (외국 관람객 350만~500만 명)
한국 참가 현황:	한국관 (역대 최대 규모의 참가) 기업연합관 - 국내 12개 대기업 집단이 공동으로 참여 서울시관

상하이엑스포 사이트 계획



총 5.28Km²의 박람회 사이트는 상하이를 동서로 가르는 황푸강 양안에 걸쳐 있으며, 푸둥지역은 3.93Km², 푸시지역은 1.35Km²입니다. 이중 입장권이 있어야만 입장이 가능한 전시 공간의 면적은 3.28Km²입니다.

구역 안내

- A 구역: 푸둥에 위치하며, 중국관 및 아시아 국가관이 있습니다. **한국관** 및 일본관도 이곳에 있으며, 엑스포에 최초로 참가하는 **북한관**도 A구역에 있습니다.
- B 구역: 푸둥에 위치하며, 엑스포 영구 보존 건물인 주제관, 엑스포 운영센터 및 문화센터가 있으며, 동남아시아 국가관, 대양주 국가관 및 국제기구 전시관이 B 구역에 있습니다.
- C 구역: 푸둥에 위치하며, 유럽 국가관, 미주 국가관 및 아프리카 국가관이 C 구역에 있습니다.
- D 구역: 푸시에 위치하며, 기업관 구역이며 **한국기업연합관**도 이곳에 있습니다.
- E 구역: 푸시에 위치하며, 단독 기업관, 도시문명관, 도시체험관 및 최우수도시 실천구역이 있으며, **서울시 쇼케이스**도 이곳에 있습니다.

영구 보존 시설



중국관 및 중국 지방정부 연합관



주제관



엑스포 문화센터



엑스포 축

주요 국가관



중국관(A구역)

상하이 엑스포 중국관의 건축외관은 '동방의 으뜸'이라는 테마로써 중국의 문화적 정신과 기질을 느낄 수 있도록 디자인 되었다. 중국관은 '도시, 삶을 더욱 아름답고 풍요롭게'라는 주제를 표현하고 있으며 전시의 핵심 내용인 '도시발전과 함께 발전하는 중국의 지혜'는 중국 도시의 역사, 현재, 미래의 위대한 문명도시로써의 발전과정을 전시한다. "오리엔탈 크라운"이라고도 불리는 이 건물은 중국문화가 동방에서 가장 뛰어난 문화라는 자긍심이 배어있다. 건축면적 2만㎡에 이르는 중국국가관과 3만㎡에 이르는 중국 지방관 및 홍콩·마카오·타이완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관 (A구역)

매력적인 도시, 다채로운 '생활'을 주제로 한 한국관은 예술화된 한글자모를 이용하여 한국 건축의 특색을 표현하고 기술과 문화가 융합된 미래 도시를 지향한다. 친환경, 에너지 절감, 효율적 자원 이용을 선도하는 한국의 Green IT 기술로 다채로운 전시물과 영상물로써 전세계 관람객들에게 선보일 계획이다. 매스 스터디스가 설계한 한국관은 일본관과 사우디아라비아관 그리고 개최국인 중국관과 인접한 위치에 배치되었다. 한국관은 부지면적 6,160㎡, 연면적 5910㎡에 전시관, 영상관, 홍보관, 한국형 정원 공공시설 등이 역대 엑스포 가운데 가장 큰 규모로 구성되었다.



파키스탄관(A구역)

16세기에 건립된 라호르성의 1:1 비율을 따라 복제



일본관(A구역)

마음의 화합, 기술의 화합



사우디아라비아관(A구역)

사막의 오아시스 모티브
공중에 높이 떠 있는 커다란 배의 형상



네팔관(A구역)

카트만두의 건축, 예술 문화중심의
눈부신 시기의 건축형식



이스라엘관(A구역)

두 개의 유선형 건축물, 조개껍질 모양



아랍에미리트관(A구역)

전기적인 색채의 협조한 모래언덕 등
독특하고 웅장한 자연경관 모티브



인도관(A구역)
고대에서 현재를 거치는 인도 도시로의 시간여행



호주관(B구역)
호주의 넓은 들판에 연이어 있는 부채꼴 모양의 암석을 형상화



말레이시아관(B구역)
말레이시아 전통건축에서 영감을 얻어 높게 뜬 두 개의 비스듬한 지붕



싱가포르관(B구역)
도시교향곡의 주체 및 싱가포르의 독특한 음향과 리듬을 표현한다



뉴질랜드관(B구역)
자연의 도시를 주제로 그 설계가 매우 독특한 공중화원으로 자연미표현



태국관(B구역)
'태국인, 지속 가능한 생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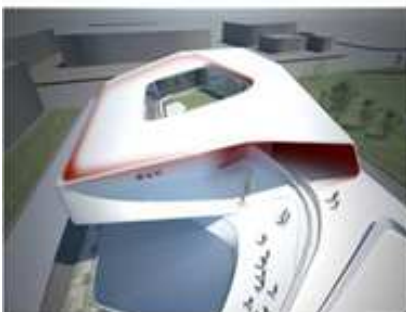
영국관(C구역)
바람이 불면 관 외부는 형형색색의 빛이 변하며 여러가지 모양을 만든다



미국관(C구역)
'2030년을 축하하며'



아프리카연합관(C구역)
아프리카 대륙의 다양한 품격과 아프리카 고대문명과 왕성한 생명력



오스트리아관(C구역)
충국 자기를 소재로 디자인



벨기에관(C구역)
'뇌세포'의 구조 모티브, 벨기에의 풍부한 과학과 예술 성취에서 비롯됨



브라질관(C구역)
새 둥지 모양을 닮은 그물망 형태로 환경 보호를 위해 재활용이 가능한 목재사용



캐나다관(C구역)

반반 둘러싸인 형태, 관 중앙에서 각종 다채로운 예술공연 상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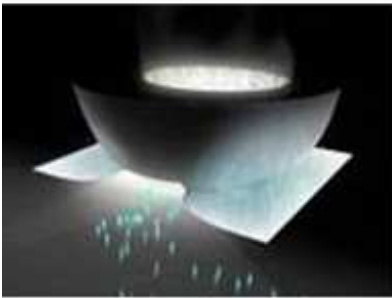
체코관(C구역)

‘문명의 열매’라는 가상의 도시화풍경 표현. 도시가 바로 문명의 열매라는 이념



덴마크관(C구역)

‘꿈의 도시’를 주제로 하여 관람객을 덴마크식 동화세계로 초대



핀란드관(C구역)

방하시기 암석이 침식되어 자연적으로 움푹 패인 모양



프랑스관(C구역)

수상 화면 등으로 물의 아름다움, 신선하고 상쾌한 물의세계 표현



독일관(C구역)

‘화합도시’라는 이름으로 고전적인 형태의 공간 및 설비로 독일인의 도시생활 표현



아일랜드관(C구역)

아일랜드 여러시대의 국가와 도시생활의 특색을 표현



이탈리아관(C구역)

이탈리아도시의 축소판, 분할된 모자이크로 다문화 화합과 공동 관계 표현



룩셈부르크관(C구역)

요새처럼 중세시기의 탑으로 둘러싸여 있고, 반투명의 벽으로 개방성 강조



멕시코관(C구역)

언으로 이루어진 숲은 멕시코인의 미래에대한 기대와 멕시코의 발전과 창조 표현



네덜란드관(C구역)

‘즐거움 거리’



노르웨이관(C구역)

15그루의 거대한 나무 모양, ‘지속 가능한 발전’의 이념을 실현



폴란드관(C구역)

폴란드 전통의 오리기 예술과 현대적인 요소를 융합한 오리기 도안에 따른 설계는 명암대비와 독특한 투광 효과를 낸다



루마니아관(C구역)

푸른 사과모양, '녹색 도시' 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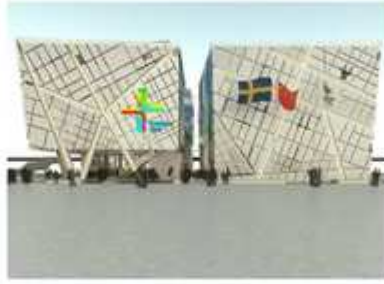
러시아관(C구역)

고대 슬라브인 부락과 유사, 생동감 있는 꽃, 태양 및 세계를 이루는 뿌리를 상징



스페인관(C구역)

복고적인 창조적 '덤굴 바구니' 건축물



스웨덴관(C구역)

외벽 강판 위에 무수한 구멍을 뚫어 수도인 스톡홀름 시내의 지도 표현



스위스관(C구역)

아름다운 자연 풍경 및 도시공간과 자연공간이 하나임을 표현

♣ 2011 서안 세계원예박람회 개최개요

- ▶ 기 간 : 2011. 4월 ~ 10월(183일), AIPH승인 A2/B1
- ▶ 장 소 : 섬서성 서안시 산파(滻灞) 생태개발지구내
- ▶ 총 면 적 : 265ha / 수역면적 83.3ha
- ▶ 참 가 국 : 100여개(국외 30, 국내 40, AIPH 30)
- ▶ 총 투자비 : 20억위엔(4,000억원)
- ▶ 주 제 : 『天人長安, 創意自然』 - 하늘(자연)과 사람이 잘 어우러지고 창의적인 자연형태 복원
- ▶ 예상 관람객 수 : 약 1,200만명
- ▶ 주최/주관 : 국가임업국, 중국무역촉진회, 섬서성정부, 중국화훼협회/서안시

박람회 주요 시설물



천인장안(天人長安)



온실전경



산파생태개발구 특색경관



산파생태개발구 특색경관

① 서안(西安, si-an, 시안)



- 위 치 : 중국 산시성 웨이하 강의 황토 고원
- 면 적 : 10,108km² ○ 인 구 : 830만명 ○ 행정구역 : 9구 4현
- 주요산업 : 제철소, 방직공장, 전기기계공장, 농산물 가공업 발달
- 특 징
 - 서안은 고대 장안(长安) 으로 인류 문명과 중화민족 발상지의 하나
 - 세계적으로 유명한 역사 문화, 국제 관광 도시
 - 새로운 유라시아 대륙의 거점으로 경제교류 중심도시
 - 기후가 온화하고 4계절이 분명하고 강수량이 적당하며 일조량도 충분한 우수한 자연환경과 풍부한 여행 자원이 있는 곳
 - 한에서 당에 이르기까지 약1,000여년동안 국도로 번영한 곳으로 장안으로 불렸다.
 - 가장 번영했던 당대에는 인구 100만이 넘는 계획적인 도시를 이루어 멀리 서방에도 그 이름이 알려졌다. 역사적으로 중요한 곳이었던 만큼 사적이 풍부하다.
 - 불상과 탑, 역사박물관(공자의 사당) 및 유물 당, 송나라의 비석, 그리고 이슬람교 사원과 성문 등 유적들이 많이 보존되어있다.
 - 수, 식물, 동물, 광물, 지열 자원 등 지하자원이 풍부한 고장
- 종교로는 불교, 도교, 이슬람교, 천주교 등 신자는 10만여명
- 시 목 : 화나무(国槐)
- 시 화 : 석류화(石榴花)

② 섬서성(陝西省) 개요

○ 지리적 특징

- 약칭 산[陝] 또는 진[秦]이라고도 부르며. 성도(省都)는 시안[西安]이다.
- 서주(西周) 시대에 지금의 **허난성**[河南省] 산현[陝縣]인 산위안[陝原]의 서쪽에 있다 하여 산시[陝西]라고함.
- **춘추전국시대**에는 진(秦) 나라의 영토였으며, 진나라가 중국을 통일한 뒤에는 내사(內史)와 상군(上郡), 한중군(漢中郡)이었다.
한(漢) 나라 때는 사예(司隸)와 병주(并州), 익주(益州)에 속하였고,
송(宋) 나라 초기에는 섬서로(陝西路)를 두었으며, 원(元) 나라에 이르러 섬서행성(陝西行省)이 설치되었다.
- 총면적 2,058천km²(고원 926, 산지741, 평원 391)
- 기 후
 - 1월 평균 -11℃-3.5℃,
 - 7월 평균 21℃-28℃
- ※ 최저기온 - 32.7℃, 최고기온 42.8℃ 년평균 강수량 340~1240mm

○ 인구 통계

- 섬서성 인구 : 3,762만명
 - ※ '07년대비 14만명 증가-자연 증가율 4.08%
- 남자 : 1,934만명(51.41%)
- 여자 : 1,828만명(48.59%)
- 기타사항 : 0-14세(17.75%), 15-64세(73.28%) 65세이상(8.97%)
- 인구분포 : 한족 99.5%, 49개 소수민족 0.5%

순천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연수 결과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2010. 11. 19.

위 제출자 : 순천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유혜숙 (인)
순천시의회 " 위원 이종철 (인)
순천시의회 " 위원 임종기 (인)
순천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서정진 (인)
순천시의회 사무국 지방행정6급 윤형래 (인)
" " 7급 이의송 (인)
" " 7급 선순복 (인)
" 통신7급 박두규 (인)
" 기능8급 임경훈 (인)

순천시의회위원장 귀하